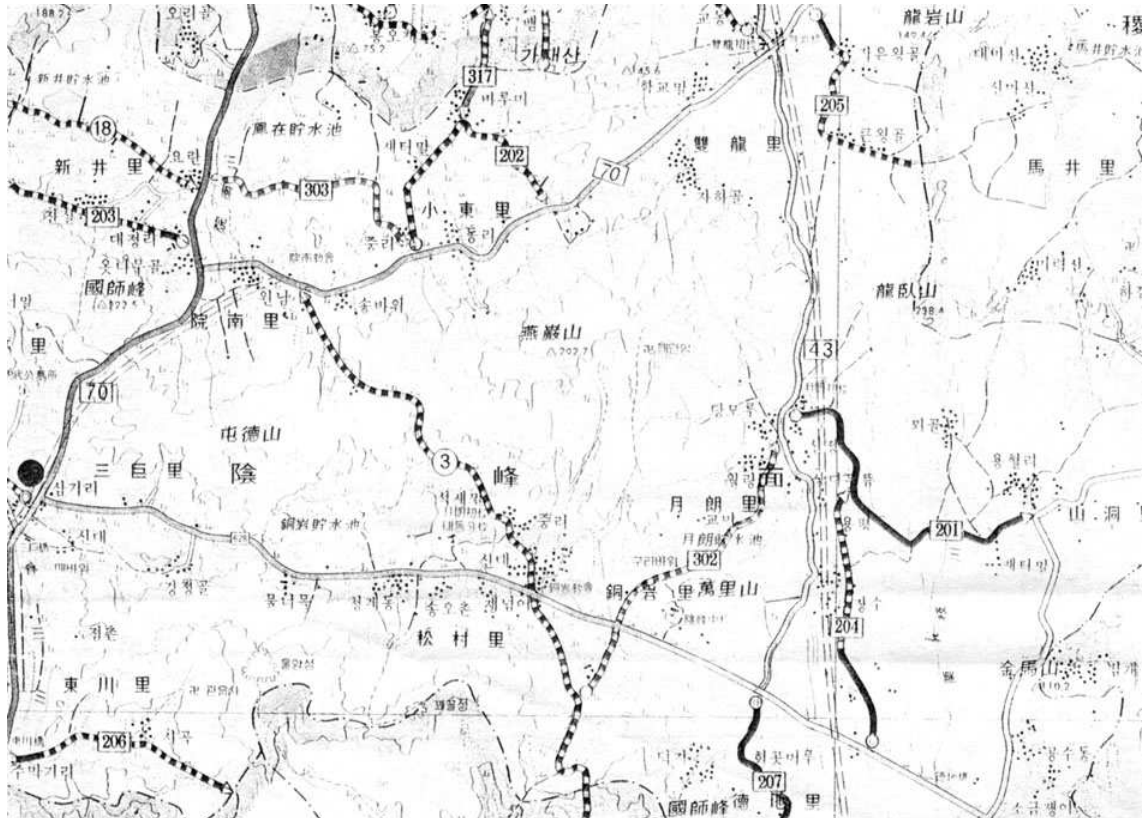


동암리·銅岩里

동암리는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마을 앞에 구리바위가 있으므로 동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흥리, 중리를 병합하여 동암리라하여 읍봉면에 편입되었다. 동암리의 총인구는 533명 그중 남자가 258명 여자가 275명이고 가구수는 224가구이며 9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암리 위치도>



⊗ 중리 동암마을

동암1리인 중리마을은 동네 가운데에 있어 중리라고 하며 동암2리 동암마을은 대동, 승리라고도 하며 동암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옛주주의 기와조각이 많이 나온다. 고려때 고을터라 하나 실제로는 덕천향터라고한다.

동암리는 마을 동쪽에 구리바위가 있어 동암이라고 하였다고 하며 구리동 銅 바위암 巖을 써서 동암리라 하였다고 전한다.

<조사당시 동암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동암리는 음봉 면사무소에서 628도로로 삼거리를 지나면 동암 저수지가 나오는데 그 옆으로 동암1리인 중리 마을이 나온다. 도로를 사이로 송촌리와 마주한다.

2) 현황

동암리의 인구분포를 보면 1리인 중리는 총187명으로 남자 89명, 여자98명이며 2리 동암은 346명으로 남자 169명 여자177명이다. 생업에서는 중리마을은 8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암은 9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경지 현황에서는 중리마을이 총164ha 이고 동암마을이 169ha로 조사되었다.

- 인구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중리마을	187명	89명	98명
동암마을	346명	169명	177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중리마을	100%	88%	12%
동암마을	100%	94%	6%

- 농경지 현황

구분	계	논	밭
----	---	---	---

마을명			
중리마을	66ha	43ha	23ha
동암마을	72ha	47ha	25ha

－ 농기계보유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중리마을	10	5	20	10	3	10
동암마을	13	6	3	7	4	8

동암리에는 회관2개소, 앰프2, 농악악기 2조 등을 구비하고 있다.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중리마을	1	1	1조	
동암마을	1	1	1조	1

－ 연령분포현황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중리마을	8	13	14	24	50	45	27	5	1
동암마을	20	30	30	43	37	76	80	20	10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곽씨	박씨	기타
중리마을	75%	8%	2%	3%	12%
동암마을	25%	8%			67%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리마을	8	3	3	5
동암마을	9	8	6	2

－ 최고령자

중리마을 97세 김현중 할아버지, 동암마을 95세 한씨 할머니

－ 호당평균소득

중리마을 년/500만원, 동암마을 년/500만원

3) 자연경관

동안리는 628도로 오다 보면 도로를 사이로 앞에 송촌리와 덕지리가 보이고 마을뒤로는 연암산, 만리산이 있으며 동암 저수지와 월랑저수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도 편리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4) 마을 변천과정

동암리는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마을앞에 구리바위가 있으므로 동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흥리, 중리를 병합하여 동암리라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5) 입향

동암리에는 김씨가 600년전부터 살고 있으며 약 2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리인 중리마을은 지금도 75% 김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지명

대동(죽동, 중리) : 동암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 옛 주추와 기와조각이 많이 나옴. 고려때 아주의 고을터라 하나 실지는 덕천향터라 함.

새터말(신대) : 동암 남서쪽에 새로 터를 잡아 이룩된 마을

주막거리 : 대동 앞 주막이 있는 마을.

만리산 : 대동 동남쪽에 있는산

말 미 : 구리바위가 있는산 모양이 말같이 생겼는데 구리바위가 그머리라함.

궁 틀 : 만석골 앞에 있는 들.

말밋들 : 말미 밑에 있는들. 옛날에는 이곳에 시장이 컸었다고함.

갓 골 : 동골 옆에 있는 작은 골자기.

만석골 : 말미 건너 남쪽에 있는 골자기 .만석군의의 큰 부자가 살았는데 펍 인색하여 중을 학대하다가 그 중의 말을 듣고 마을의 주룽을 꿇고 멸망하였다고 함.

이곳을 파면 옛날에 바다여서 백모래가 나온다고 한다.

삼밭골 : (새터말)북쪽 연암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동 골 : 진골 동쪽 옆에 있는 골짜기

절 골 : 삼밭골 옆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음.

진 골 : 새터말 북쪽 봉우재 밑에 있는 가장 긴 골자기

텃 골 : 백정 모랭이 위쪽에 있는 골짜기.옛터가 있음.

대동내 : 둔덕산에서 발원하여 대동을 거쳐 덕지 월랑천과 을지내와 합류하여 매곡천으로 들어감

육판재 : 지골에 있는 고개. 여섯 판서가 났다는 명당이 있다함.

구리바위 : 대동입구에 있는 큰 바위 구리빛이 나며 두드리면 쇳소리가 남.

바위위에 굴껍질 같은 것이 붙어 있는 데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가 되어서 이

바위 위에서 굴을 땀다고 한다.

사령바위 : 동암리와 송촌리 경계에서 있는 바위.

장기바위 : 새터말 뒤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장기판을 새기 있음.

제비바위 : 새터말 북쪽 연암산 남쪽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침

동암저수지 : 동암리 송촌리에 걸쳐 있는 만수량369천톤인 저수지

사정터 : 새터말 에 있는 사정의 터

읍 터 : 중리에 있는 옛읍터

주추와 기와 조각이 있는데, 고려 때 아주현의 터 라고함

구번논 : 구리바위 밑에 있는 논 서마지기가 되는데, 말의 굵과 같이 생기었음.

백정 모랭이 : 만석골과 덕지리의 저부리 새에 있는 산모롱이

수로왕 묘 : 대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수로왕의 사당.

대동에 사는 김씨들이 1963년에 세웠음.

7) 전설

·구리바위

옛날에 마을에는 가실리와 낙랑이라는 두 남녀가 있었다. 이 두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며 장래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하지만 해마다 이 마을에서는 용왕제에 쓸 처녀를 선택하는데 이번엔 가실리가 선택된 것이다. 가실리는 물론 부모님 낙랑 모두가 이 사실에 슬퍼서 어쩔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한편 마을에서는 용왕님께 제사 지낼 준비에 마을사람들은 모두 법석이였다. 낙랑은 사랑하는 가실리를 주게 내버려 둘수가 없어서 가실리와 멀리 도망가려 했으나 가실리는 허락할수 없었다. "내 비록 죽을지언정 어찌 마을에 해를 입히겠습니까?" 가실리는 오히려 낙랑을 위로 했다. 드디어 가실리는 온 동네 사람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끌려가 바닷물에 던져지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름아닌 낙랑인 것이다. 그 뒤로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배도 없었고 고기도 잘 잡혔으나 이상하게도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그곳이 육지가 되는 것이다. 물이 다 마르자 바닷에는 마치 남녀가 껴안고 있는 듯한 큰 바위가 나타 났는데 그바위의 빛깔이 구리빛이고 두드리면 쇠소리가 난다하여 구리 바위라 하였다.

·소금쟁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도 전설이 있다. 우리 마을은 본래가 바다였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만들어 소금장수를 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배 부자라는 천석갑부가 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늘 고심하였고 또 아들을 갖기를 소원하여 왔다. 그런 어느날 한 노승이 그 집에 와서 시주를 부탁했다. 그러나 갑부는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쌀 한 홉을 가지고 나왔다. 노승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는 갑부에게 말했다.

"실례지만 댁에는 아들이 없으시죠?"

그러자 갑부는 깜짝 놀라 말했다.

"예, 그렇소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지요" 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자 노승은 갑부에게 "당신 팔자에는 아들복이 없소이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아들을 정 갖고 싶다면 금마선 꼭대기에 가서 바다를 가라앉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 드리시오. 그리하면 아들이 생길 것이요" 그러자 갑부는 그날로 떡을 해서 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그 날부터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기도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바다를 가라 앉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아들을 내려 주소서" 그러자 몇년이 지나서 갑부에게는 아들이 생기고 바다는 차츰 흔적을 감추기 시작하여 육지로 변해 버렸다 한다. 그래서 동네에 살던 소금 장수는 하나 둘 마을을 떠났고 마침내는 그 동네에 소금장수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금 장수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소금쟁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옛날 부자의 소원으로 없어진 바다를 그리워 해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소금쟁이라 불리우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동암리에는 유황제와 산신제가 있는데 옛날 마을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새터말에서 유황제를 지냈는데, 8.15 해방후 마을이 합쳐져서 유황제를 지내지 않고 산신제를 지낸다. 산제는 음력 동지달에 들어서면 복날을 정해 당미산에서 지내는데. 이때 산제를 지내는 사람을 정하는 것도 생기 복덕한 사람을 정해 일주일간 정성을 다해 지낸다고 한다. 또 대동전체가 함께하는 마을잔치가 있으며, 3년에 1번씩 정월달에 노승제를 지내는데 장소는 마을에서 200~300m떨어진 곳에 장승을 세워 놓은곳에서 지낸다.

대동초등학교 옆에는 수로왕의 사당이 있는데 대동에 사는 김해 김씨들이 음력 3월 보름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마을계로는 12월 말에 결산하는 계가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대동 교회 음봉면 동암리 533번지 목사 박두규 종파 : 감리교

송암새일교회 음봉면 동암리 413번지 집사 방경용 조파 : 새일교

11) 공장현황

이 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마을의 특성

동암리 마을회관 앞으로 28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10m이고 둘레는 4.5m로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동암리는 회의실, 노인실, 청소년실, 부녀회실을 운영하고 있다.